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준비 순조

29일 D-100 '디자인비엔날레의 날' 행사로 분위기 확산

앙드레 김 등 명예홍보대사 추가 선임...국·내외 홍보 박차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 100여일을 앞두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날'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디자인 축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오는 29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날' 행사를 갖는다.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 앞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놀이과 축하공연과 홍보 동영상 상영 등 순서로 진행된다.

재단은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 김과 노르베르트 바스(Norbert Baas) 주한 독일대사를 명예홍보

대사로 위촉했다. 재단은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것을 기념해 상징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또 지난 달부터 외부인사 4명으로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유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해외 홍보 설명회를 갖는 등 국내외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L.I.G.H.T'를 주제로 10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다 보다 연주가 좋은 '멋진 아줌마들'

"뒀다" 광주 첫 아줌마 악단 '줌마밴드'

30~50대 12명으로 결성...5월 자선음악회 성황리 마쳐

"어디든지 달려가 무료공연" 23일 사랑나눔작은음악회



30~50대 아줌마들로 구성된 '줌마밴드' 멤버들이 오는 23일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각자의 악기를 정했다. 연습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공연을 앞두고는 거의 매일 연습이 이뤄졌다. 멤버 대부분이 남편과 아이를 뒷바라지 하는 주부인데 교사, 학원 원장 등 직업까지 갖고 있어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연습에 열중했다.

치었다. "남편들이 반하더라니까요. 지금은 연습하러 나올 때 숙달된 조교(남편과 자식)들이 식사 챙겨 먹고 그러죠. 내부부장관들의 후원이 두렵잖아요. 합칠기는 하지만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너무 행복해요."(김행희)

"TV에서만 봤지 난 무대라는 것도 그냥 처음 봤어요. 근데 내가 거기 올라가 공연을 하더니 정말 신기했죠. 아줌마들이 밴드를 구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부러워 하던데요."(김정례)

사실, '줌마 밴드'는 아직 초보 단계라 연습한 곡 이외에는 잘 연주하지 못한다. '합주는 되는데 독주는 안되는 그룹'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한다. 악보를 외워 연주해야 하지만 도통 외워지지 않아 행여 악보가 날아갈까 봐 보편대에 악보를 고정시키는 '빨대집게'는 필수품이다.

지난달 공연을 보고 밴드에 들어온 정정애씨는 "관객 입장이었는데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고생 시절의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 부러웠다"고 말했다.

기타를 맡고 있는 김미숙씨는 "실력이 아직은 내세울 만한 건 아니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무료로 연주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열리는 '사랑나눔작은음악회'에서 '줌마밴드'의 멋진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945-27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한미국대사관 '美 문학 걸작선' 3권 동시 출간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가 '미국문학 걸작선' 3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2006 O. 헨리 문학상 수상작품집", "2006 미국 올해의 가장 좋은 시", "할렘 르네상스: 개인과 집단"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미국에 관한 교육자료를 요청하는 대학생과 일부 고등학생 또는 문학 애호가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상작품집'은 '마지막 잎새'로 유명한 윌리엄 시드니 포터(William Sydney Porter·1862~1910·O. 헨리의 본명)를 기리고 단편소설 장르를 강화하기 위해 1919년부터 이어져 온 O. 헨리 문학상의



2006년 수상작을 모아놓은 것으로, 에드워드 존스의 '올드 보이즈, 올드 걸스' 등 단편 소설 20편이 실려 있다.

"'좋은 시'는 스크리브너 포이트리 출판사의 'The Best American Poetry 2006'을 번역한 책. 70여편의 영시가 번역돼 있으며 뒷부분에는 영문 시도 부록으로 실렸다. '할렘 르네상스'는 미국 하와이

대 마크 헬블링 미국학 교수의 인문학 서적이다. 비매몰이며 책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화(02-397-4662) 또는 이메일(irseoul@state.gov)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간 위주 현대사회에 경종

허진현 내달 3일까지 서울 베아르메

소치 허현의 윤리산방 화백을 5대째 이어가고 있는 허진(전남대 미술) 교수가 서울 갤러리 베아르메에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남궁 허현의 장수인 그는 이번 전시에서 사구의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작품을 선보인다. 인간과 동·식물 등 인간우월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단지 '차이의 세계'로 존재하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작품에 담았다.

그는 화폭에서 의도적으로 개, 호랑이, 얼룩말, 기린 등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인간중심으로 전개되는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목동물+인간'

미술대전 특선.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젊은 모색 90-한국화의 새로운 방향' 전 등 250여개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2-739-4333.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남도소리 상설무대 '김미숙의 동동술래'

오늘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하는 남도소리 상설무대 '김미숙의 동동술래'가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인 김미숙씨가 이끄는 김미숙 하나무용단은 이번 공연에서 장고춤, 태평무, 입춤, 즉흥무 등 고유의 전통춤과 '시집가는 날' '가을 동화' '취파람새, 흥매화, 그리고 목련' 등 현대적 주제를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창작무용을 함께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전남 서남해안 지방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 전승되는 강강술래를 재해석한 '동동술래'가 장식한다. 흥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김일환·전진희씨 등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510-9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박물관 '임장원선생 초상화' 등 유물 71점 기증 받아

국립 광주박물관은 19일 조선 후기 부승지 등을 지냈던 규암(葵庵) 임장원(任長源·1734~1804) 선생의 초상화(사진) 등 유물 71점을 임병선(순천 향림초등학교 교장)씨로부터 기증받았다.

기증유물은 장흥 임씨 선조들의 유품으로 18세기에 제작된 임장원의 초상화를 비롯, 교지(敎旨)와 시권(試券) 54점, 고서 8점 등이다. 임장원은 보성 출신으로 정조 때 부승지(副承旨)와 숙천부사(肅川府使) 등의 벼슬을 지냈다.

고서로는 규암만경(葵庵晩景)과 규암집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葵庵集) 등 임장원의 친필문집과 정조 때 간행된 어정두륙 천선(御定杜陸千選)이 포함됐다. 어정두륙천선(御定杜陸千選)은 정조의 명에 따라 당의 두보와 송의 육유의 시 1천 수를 엮은 시선집으로 1799년(정조23년)에 간행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총창로 5가 ☎ 228-2700

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

무등극장 총창로 1가 ☎ 232-9106

제일시네마 총창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